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7. 7월

정의(正義)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개개인에게 할당하고 이익과 부담을 분배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따라서 정의의 실현은 정의를 정의(定義)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사회 정의를 말한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롤스, 노직, 왈처가 있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왈처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 주창했다.

롤스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사회 전체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그러나 롤스는 사회적 효용성을 증가시킨다는 명분 아래 개인의 자유가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 즉,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 평등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원칙에 합의할 때 합의의 절차가 공정하다면 절차를 통한 결과는 정의롭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창했다. 롤스는 이러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았는데, 제1원칙은 모든 사람이 언론과 사상, 종교, 신체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인데,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이고, 기회 균등의 원칙은 사회적 지위나 직책에 접근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제1원칙은 항상 제2원칙에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무지(無知)의 베일'을 쓴, 즉 베일을 둘러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상대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 능력 등을 알지 못하는 ㉡ 원초적 입장에 있다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봤는데, 이때 인간은 자신이 가장 불우한 계층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에 모든 사람 또는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원칙에 모두 합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롤스의 정의론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복지 정책과 같은 재분배의 중요성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원초적 입장이라는 설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노직은 롤스와 마찬가지로, 공익을 위해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롤스가 차등의 원칙에 따라 소득과 부에 대한 개인의 권리에 제한을 두었던 반면, 노직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정의라고 보며 개인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주창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라면 그 소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런 소유물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개인의 소유물 취득과 양도 과정에 문제가 없는 한,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에 어떠한 강제도 할 수 없으며, 빈부격차가 심화되더라도 자발적 자선 행위가 아닌 국가 주도의 재분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는 최소 국가를 옹호한다.

한편 왈처는 롤스와 마찬가지로 분배를 통한 사회 정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봤으나,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 상황에서 이끌어 낸 단일한 정의의 원칙을 모든 사회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롤스를 비판했다. 그는 사회에는 해당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소산인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존재하며, 그 가치마다 그것이 속하는 고유의 영역이 있으므로 서로 다른 영역의 가치는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창했다. 예를 들어 의료 및 복지라는 가치는 필요에 따라, 돈과 상품은 자유 교환에 따라, 명예 또는 공직은 업적에 따라, 교육은 재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다른 영역의 재화까지도 쉽게 소유하는 것을 반대하며 경제 영역의 고유 가치인 돈은 경제 영역에만, 정치 영역의 고유 가치인 권력은 정치 영역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보았다. 즉 왈처는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침범하는 것이라 여겼으며, 명예나 공직과 같은 가치가 돈이라는 가치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러한 사회는 정의로울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는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름으로써 복합 평등이 실현될 때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1.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답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질문** :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 ① 롤스는 '예', 노직은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 ② 롤스는 '아니요', 노직은 '예'라고 답할 것이다.
- ③ 롤스와 노직은 모두 '예'라고 답할 것이다.
- ④ 롤스와 노직은 모두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 ⑤ 롤스, 노직, 왈처는 모두 '예'라고 답할 것이다.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리주의자들은 사회 전체의 효용성을 기준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군.
- ② 실질적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겠군.
- ③ 왈처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의 문화적, 역사적 소산으로 분배의 대상이 되겠군.
- ④ 정의는 사회를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 철학자들에 따라 정의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겠군.
- ⑤ 노직은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보겠군.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미국에서는 기여 입학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하버드대와 같은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들은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의 자녀를 기여 입학 대상자로 선정하여 1,600점 기준의 SAT 점수에 160점 정도의 가산점을 준다.

(나) 미국의 갑부 워런 버핏은 자신의 소득세율이 17.4%인 것에 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소득세율은 그 두 배 정도인 33~41%라며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부유층의 세율을 인상하고 1천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초과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걷자고 주장했다.

- ① (가) : 롤스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여 입학제가 지위나 직책에 접근할 기회에 영향을 준다면 기여 입학제는 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라 할 수 있겠군.
- ② (가) : 노직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의 재산 정도에 따라 입학의 기회가 결정되는 기여 입학제는 개인의 소유물을 양도하는 것에 제약을 두는 제도라 할 수 있겠군.
- ③ (가) : 월처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여 입학제는 경제 영역의 가치인 돈이 교육을 침범한 것으로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에 어긋나는 제도라 할 수 있겠군.
- ④ (나) : 롤스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정 소득 이상의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최소 수혜자를 위한 것이라면 차등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나) : 노직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정 소득 이상의 부유층에게 초과 세율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4.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호 간에 우열을 가리게 되어 경쟁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상황
- ② 상호 간에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게 되어 서로를 신뢰하게 만드는 상황
- ③ 상호 간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게 되어 인간적인 유대감이 파괴되는 상황
- ④ 상호 간의 개인적 정보를 모르게 되어 합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
- ⑤ 상호 간에 효율성을 중시하게 되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는 상황

5.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늠했다                      ② 분석했다                      ③ 내세웠다
- ④ 제공했다                      ⑤ 살펴봤다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7. 7월

마을 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 바보자석 하나 때문에 소 여물도 못 하러 가고 이기 뭐라. 스무 마리나 되는 소가 한꺼분에 밥 굶는 기 중요한가, 바보자석 하나가 어데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기 중요한가, 씨그랄.”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龍王祭)에 축(祝)을 초(草)하는 황재석 씨가 받았다.

“그래도 질래 있던 사람이 없지마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지는 기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라. 반그이, 아이다, 만그이가 여계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분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아이지요, 어르신. 가가 군대간다 컷을 때 여운지 토개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습다.”

용왕제에서 집사 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열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 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어제 꺾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꺾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 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이라고 몇 밉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도 모있다는 기 백 밉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반그이는 돼지고기 반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칸께.”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민 씨는 이장이 꺾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제 밤에 내일 꺾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력보았다.

“왜, 농민보고 농민꺾기대회 꼭 나오라 컷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 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부채 탕감 촉구 전국농민 총꺾기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카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데서 술 처먹고 주질러앉았을 기라. 백릿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으이 시간도 마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투쟁방침이 그렇다카이.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 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이를 몰았나. 남들이 못 몬다뿌이지.”

(중략)

전날 밤, 분명 꿈은 아니었다, 민 씨는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농사꾼은 빛을 지마 안된다 카이.”  
(한번 빛을 지면 그 빛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 동네 곳곳에 텅 빈 우사(牛舍), 마른똥만 뒹구는 축[A]사, 잡초만 무성한 비닐하우스를 보라. 농어민 복지, 소득향상, 생활개선? 다 좋다. 그걸 제 돈으로 해야 한다. 제 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노름이나 다를 바 없다. 빛은 만근산의 눈덩이, 처마의 고드름처럼 자꾸 커진다.)

“기계화 영농 카더이마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밋이나 되나.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거다, 탈곡기, 전조기에…… 다 빛으로 산 기라. 농사지봐야 그 빛 갚느라고 정신없다.”

(한 집에서 일 년에 한 번 쓰는 이앙기를 들여놓으면 그게 일 년 내내 돌아가던가. 놀 때는 다른 집에 빌려주면 된다. 옛날에는 소를 그렇게 썼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짓던 건 옛날 말이다. ㉡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도 안 빌려주면 옆집에서는 화가 나서라도 산다. 어차피 빛으로 사는데 사기가 어려울까.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면세유(免稅油)다. 면세유 가지고 기계를 다 돌리기는 힘들다. 옆집에는 경운기가 두 대데 면세유는 한 대분밖에 나오지 않는다. 경운기가 왜 두 대씩 필요할까. 한 사람이 한꺼번에 두 대를 모는 것도 아닌데.)

“그런 기 다 쌀값에 언차진다. 언차져야 하는데 사실로는 수매하마 먹고살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다. 그 대신에 빛을 준다. 자금을 대준다 카는데 둘 다 안했으마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멧덩구리로 만든다.”

(따라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점점 없어진다.)

“지 입에 들어갈 양석, 곡석을 짓는 사람이 그 고마운 곡석, 양석한테 장난치겠다. ㉢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뺏으마 그마이가?”

(모두 빛을 갚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그러므로 빛을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주듯이 내주는 사람, 기관은 다 농사꾼을 나쁘게 만든다. 정책자금, 선심자금, 농어촌구조 개선자금, 주택 개량자금, 무슨무슨 자금 해서 빌려줄 때는 ㉣ 인심 좋게 빌려주는 척하더니 이제 와서 그 자금이 상환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파산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와서 그 빛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내가 왜 빛을 안 졌냐고. 아무도 나한테 빛 준다고 안캐.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 서라는 이야기도 안했다. ㉤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지민서 안 망하고 백 년을 살 기라.”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을 회관에 모인 동네 사람들 중에 황만근의 소재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 ② 민 씨는 황만근의 아들로부터 그의 실종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 ③ 황동수는 황만근의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그가 외박을 한 적이 없다는 황재석 씨의 말에 동의하고 있다.
- ④ 이장은 황만근의 실종이 술 때문이라고 짐작하며 그의 실종으로 인해 모이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 ⑤ 황재석 씨는 황만근의 평소 행적을 토대로 그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7. <보기>를 참고하여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공동체 의식이 무너져 가는 농촌을 배경으로 바보 취급을 당하는 농민 '황만근'의 삶을 다루고 있다. 작가는 부채로 얼룩진 농촌의 현실과 그 안에서 우직하게 살아가는 농민의 삶을 대비하여 보여 줌으로써 소박하게 살아가는 인물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① ㉠: 기계화 영농이 농민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빚을 지게 하는 농촌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군.
- ② ㉡: 서로 도와가며 농사짓던 농촌의 공동체 의식이 무너진 현실을 볼 수 있군.
- ③ ㉢: 농약과 비료의 값이 올라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군.
- ④ ㉣: 기관들이 지원하는 각종 자금이 오히려 농가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군.
- ⑤ ㉤: 자신의 방식대로 소신껏 농사를 짓겠다는 인물의 우직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8. 썰기대회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만근의 성품을 드러내며 비극적 사건을 유발한다.
- ② 이장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 ③ 과거의 사건과 연결되어 민 씨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암시한다.
- ④ 대립하던 마을 사람들이 화해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⑤ 민 씨로 하여금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깨닫게 하여 현실에 안주하게 한다.

34.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만근의 말을 민 씨의 시선을 통해 풀어서 제시하고 있다.
- ② 황만근의 말을 인용해 민 씨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황만근의 삶을 민 씨의 반성을 통해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 ④ 황만근의 처지가 민 씨의 말에 의해 과거와 대비되어 강조되고 있다.
- ⑤ 황만근의 말에 민 씨의 말을 덧붙여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1~5]

**정의(正義)**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개개인에게 할당하고 이익과 부담을 분배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따라서 정의의 실현은 정의를 정의(定義)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사회 정의**를 말한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롤스, 노직, 왈처가 있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왈처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창했다.

사회 정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파악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키워드는 사회 정의(정의만 주워가셔도 괜찮습니다)로 잡아봅시다.

**롤스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사회 전체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그러나 롤스는 사회적 효용성을 증가시킨다는 명분 아래 개인의 자유가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 즉,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 평등을 증시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원칙에 합의할 때 합의의 절차가 공정하다면 절차를 통한 결과는 정의롭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창했다. 롤스는 이러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았는데, **제1원칙**은 모든 사람이 언론과 사상, 종교, 신체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인데,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이고, 기회 균등의 원칙은 사회적 지위나 직책에 접근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제1원칙은 항상 > 제2원칙에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롤스의 정의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미 스포 빠르게 당했으니까 편하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여담이지만, 문과 생운 선택자 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국어 문제이니 지문을 바탕으로 공부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의론 : 롤스
- 공리주의 비판
  - 공정으로서의 정의
  - 평등한 자유의 원칙(제1정의) = 기본적 자유에 평등
  - 차등의 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제2정의) = 최소 수혜자 이익 보장, 접근 기회 공평
  - 제1원칙 > 제2원칙

한편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무지(無知)의 베일**'을 쓴, 즉 베일을 둘러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상대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 능력 등을 알지 못하는 **원초적 입장**에 있다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봤는데, 이때 인간은 자신이 가장 불우한 계층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에 모든 사람 또는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원칙에 모두 합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롤스의 정의론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복지 정책과 같은 재분배의 중요성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원초적 입장이라는 설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앞 문단에서 설명한 롤스의 정의론에서 말하는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사회)정의'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문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 롤스
- 무지의 베일 : 원초적 입장(가상) = 동등한 입장, 합리적 판단 -> 모든 사람 or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혜택 합의
  - ∴ 재분배 중요성(복지), 비현실적(비판)

**노직**은 롤스와 마찬가지로, 공익을 위해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롤스가 차등의 원칙에 따라 소득과 부에 대한 개인의 권리에 제한을 두었던 반면, **노직**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정의라고 보며 개인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주창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라면 그 소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런 소유물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개인의 소유물 취득과 양도 과정에 문제가 없는 한)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에 어떠한 강제도 할 수 없으며, 빈부격차가 심화되더라도 자발적 자선 행위가 아닌 국가 주도의 재분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는 **최소 국가**를 옹호한다.

롤스에 이어서 노직의 정의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문단에서 역시나 제대로 스포당했기 때문에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다만, 문단 앞부분에서 롤스와의 공통점으로 연결고리를 잡으면서, 뒷 부분에서는 롤스와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노직의 정의론 특징을 드러낸다는 점은 같이 파악해주시면 좋습니다.

- 노직 :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 개인의 자유 중시(=롤스)
  - 개인의 소유권리 중시 : 타인에게 피해 X, 정당한 노동 = 정당, 정당한 절차 = 양도 가능
  - 소유 및 양도 과정 문제 X = 국가 강제 X
  - 국가 주도 재분배 X = 최소 국가

한편 **왈처**는 롤스와 마찬가지로 **분배를 통한 사회 정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봤으나,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 상황에서 이끌어 낸 단일한 정의의 원칙을 모든 사회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롤스를 비판)했다. 그는 사회에는 해당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소산인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존재하며, 그 가치마다 그것이 속하는 **고유의 영역**이 있으므로 서로 다른 영역의 가치는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창했다. 예를 들어 의료 및 복지라는 가치는 필요에 따라, 돈과 상품은 자유 교환에 따라, 명예 또는 공직은 업적에 따라, 교육은 재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다른 영역의 재화까지도 쉽게 소유하는 것을 반대하며** 경제 영역의 고유 가치인 돈은 경제 영역에만, 정치 영역의 고유 가치인 권력은 정치 영역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보았다. 즉 왈처는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침범하는 것**이라 여겼으며, 명예나 공직과 같은 가치가 돈이라는 가치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러한 사회는 정의로울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는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름으로써 복합 평등이 실현될 때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롤스와 왈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짚으면서 왈처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반복되고 있네요. 하던대로 정리해봅시다.

- 왈처 :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
- 분배를 통한 사회정의(=롤스)
  - 원초적 입장 -> 모든 사회 동일 적용 비판
  - 다양한 사회적 가치 = 고유 영역 -> 다른 기준으로 분배
  -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 복합평등
  - 다른 가치침범 X(돈)

이 지문은 1문단에서 화제와 키워드는 물론이고 뒤에 나올 내용까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지문입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연습을 실전에서 할 때, 이런 느낌으로 진행해주시면 된다는 부분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 해당 지문을 수록했습니다. 지문을 읽을 때 반드시 키워드, 화제 잡고 들어가주세요!

1. ④  
둘 다 기본적 자유는 제한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2. ②  
롤스의 정의론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롤스는 실질적 평등을 중시했고, 그것은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입니다. 따라서 양립 가능합니다.

3. ②  
(가)는 기부입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기부를 하면 가산점을 주는 제도네요. 돈이라는 개인의 소유물을 자유롭게 양도하규 있습니다. 제약이 아니네요.

4. ④  
롤스가 정의 원칙을 도출해낼 때 원초적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에 따르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동등한 상태에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고로 모든 사람 혹은 가장 불리한 사람(최소 수혜자)의 혜택에 동의한다고 해요.  
바로 답이 나오네요.

5. ③  
풀이 생략

[6~9]

6. ③

황재석은 황만근이 한 번도 집에 안들어 온 적이 없다고 하고, 황동수는 거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용일치 문제네요,

7. ③

???????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일 뿐, 그 값이 비싸서 농촌을 떠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8. ①

똥진 몰라도 황만근에게 민 씨가 쫓겨대회에 나오라고 부탁을 했고, 황만근은 거기에 갔다가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쫓겨대회는 남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황만근의 성품과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적 사건을 모두 드러낸다고 할 수 있어요

9. ①

‘민 씨는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라는 대목을 통해, 황만근의 발화를 민 씨가 듣고, 그에 대한 민 씨의 생각을 드러냄을 알 수 있습니다.

